

# 신라 고승 혜각 스님 비문 발견

중 푸단대 로우씨 고려대 '사총' 제73집서 발표

육조혜능의 법맥을 이은 제7조 하택신회의 직제자였던 신라 고승 혜각(惠覺: ?~774) 스님의 비문이 최초로 발견됐다. 이번 발견은 신라 혜각 스님이 육조혜능과 하택신회의 법을 이은 계승자로 중국 하북(河北) 지역에서 남종선 권위를 확립했음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 푸단대학(復旦大)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로우정하오(樓正豪) 씨는 최근 고려대 사학회가 발간한 《사총(史叢)》 제73집에 '새로 발견된 신라 입당구법승 혜각선사의 비명(碑銘)'을 기고했다.

로우 씨는 "2009년 7월21일 허베이성(河北省) 신타이시(邢臺市) 시주양촌(寺莊村)의 한 민가에서 신라 입당구법승인 혜각 선사와 관련된 '大唐口口口故覺禪師碑銘并序' 비석 파편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민가는 비석이 원래 있었던 칠천사지(漆泉寺址)에서 1km 가량 떨어진 곳으로 민가 주인인 첸생진(陳生金·83)씨가 중국 문화혁명(1966~1968) 때 네 조각으로 파괴된 비석 중 두 조각을 집으로 옮겨와 40년간 식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혜각 스님의 비석이 있던 칠천사는 청대까지 남아있던 대규모 선종사찰이다. 현재 칠천사지에는 혜각 스님 비석의 귀부와 이수(水)가 남아있다.

이번에 발견된 혜각 스님의 비문은 상당 오른쪽(높이 110.8cm, 넓이 53cm, 두께 26cm)과 하단 왼쪽(높이 103.5cm, 넓이 50cm, 두께 26cm) 부분이다.

로우정하오씨는 "발견된 조각으로 유추해 볼 때 전체 비석의 높이가 넓이는 각각 215cm와 104c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스님의 비문은 해서와 행서로 쓰여져 있

혜능-신회 직계 혜각 스님 비문  
40년간 민가서 식탁 사용돼  
남종선 정통 계승자 증명

고 마모가 심한 편이다.

로우정하오 씨는 "훼손 정도가 심하지만 비석의 상당부분이 해석 가능하다. 비문 연구를 통해 혜각 스님의 생애와 사상의 대체적인 윤곽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로우 씨는 "비문 내용 분석을 통해 혜각 스님은 유식학이 성행했던 신라 석덕왕대에 선종을 배우기 위해 입당했던 구법승이었으며, 하택신회의 유일한 외국인 제자이자 정통 남종선의 계승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혜각 스님은 형주 개원사(開元寺)에 육조혜능비 건립 및 하북 지역에서 남종선의 권위 확립한 당사자였으며, 최치원이 지은 '지증대사



비'에 소개될 정도로 당나라에서 임직한 신라 최고의 구법승이었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oetana@hyunbul.com

# 한국불교학 인물 총망라

동국대 BK21 제1팀 '한국불학자 생애와 사상' 완간 앞뒤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한국 불학자를 총망라한 자료집이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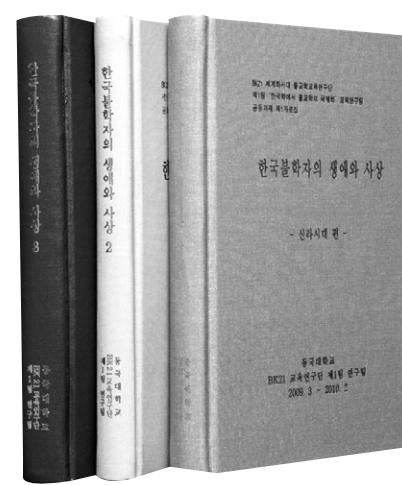
동국대 BK21 세계화시대 불교학교육연구단 제1팀(팀장 고영섭)은 최근까지 《한국불학자의 생애와 사상》 1·2·3권을 펴내고, 2013년 2월 4권 완간을 앞두고 있다.

2009년 3월부터 시작된 사업을 통해 제1팀은 매년 한 권씩 성과물을 책으로 출간했다.

제1권(2009년 3월~2010년 2월)에서는 '통불교'의 완성자 원효 스님을 비롯해 연기적 지평의 융합자 원측 스님, 동아시아 지장신앙의 정초자 신방 스님, 한국 화엄의 대성자 의상 스님 등 신라시대 16인의 선지식을 수록했다.

제2권(2010년 3월~2011년 2월)에서는 고려불교를 재설계한 통방학자 의천 스님, 고려 중후기 위앙선 계승자 지겸 스님, 고려 후기 천태종 계승자 천인 스님 등 고려시대 12인의 스님을 정리했다.

제3권(2011년 3월~2012년 2월)에서는 무심선의 정초자 백운 스님, 원융불교 구현자 태고 스님, 고려말 불교의 전법자 나



옹 스님, 조선 태조의 왕사 무학 스님 등 15인의 고려 및 조선시대 스님을 담았다.

고영섭 제1팀장은 "BK21연구단 제1팀은 고려후기와 조선전기에 이 땅에 살면서 불교를 믿고 불학을 했던 한국불학자의 삶과 생각을 탐구했다.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고전에 대한 천착'과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문제의식 아래 이뤄진 결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 서울의 문화재 한 눈에

'서울의 문화재' 증보판 발간...5·6권은 불교문화재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는 최근 서울시 소재 1400여 종 문화재를 책자와 시디(CD)에 담은 《서울의 문화재》 증보판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서울의 문화재》는 2003년에 발간한 책의 증보판으로, 국가지정 및 서울시 지정 문화재를 전문가의 설명과 사진 및 도면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책은 국배판 6권으로 구성돼 있고 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다.

이는 2003년 발간 당시에 비해 서울시 소재 문화재가 800여 건에서 1400여 건으

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제5권은 불교문화재 중 불화와 불교경전 등을 담고 있다. 수월관음도와 팔상도, 《화엄경》, 《연화경》 등은 우리나라 정신 문화유산 중 하나인 불교문화의 일면을 엿보게 한다.

제6권은 불화와 불교경전 외 불교 관련 문화재를 수록했다. 문화재로 지정된 서울소재 사찰들과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 불상 등을 담고 있다.

책은 서울시 종합자료관 및 정부간행물 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조동섭 기자

## 불교와 사상의학의 만남

동국대 불문연, 31일 오후 1시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중욱)과 한의학연구소는 3월 31일 오후 1시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본관 2층 불교학술원 세미나실에서 '불교와 사상의학의 만남-인간 이해의 새로운 접점을 찾아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불교와 사상의학'을 통한 심신치유프로토타입 구축'을 주제로 한국연구재단 융합과제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연구원은 2011년 9월부터 연구를 진행 중이다.

행사에는 불교학 전공자 5인과 사상의

학 전공자 3인이 논문을 발표한다.

제1부 불교의 의학적 인간론에서는 이필원 동국대 한의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가 '사대요소설과 명상수행, 그리고 수행의 효과'를,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인간유형연구'를, 박서연 동국대 한의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가 '한국불교사와 동양의학사에서의 인간론 변용비교'를, 이기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가 '불교와 사상의학의 의(醫) 개념 비교고찰'을 발표한다.

조동섭 기자

## 인도학과 논리학 조명

4월 6일 오후 1시 동국대 100주년 기념관서

인도철학회(회장 서행정)와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유진)은 4월 6일 오후 1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100주년기념관 5층 세미나실에서 '인도학과 논리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이태승 위덕대 교수가 '현장의 유식비량 논난에 대한 중관학적 고

찰' ▷성정환(동국대 교수가 '분별과 사분별에 대한 논쟁' ▷권서용 부산대 교수가 '대상인식과 자기 인식으로서의 지각과 추리에 관한 다르마키르티의 논증' ▷안양규 동국대 교수가 '붓다와 크리슈나무르티의 철학적 공통기반' 등을 발표한다. (054)770-2506

조동섭 기자

## 호국도량 북한산 중흥사 역사적 조명

불광연구원, 3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대표적인 호국도량이던 경기 중흥사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행사가 열린다.

불광연구원(원장 지홍)은 3월 3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산성과 호국도량 북한산 중흥사'를 주제로 승군 수사찰 북한산 중흥사 복원기념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역사, 산성·방위, 승군, 인물·

종조, 가람·복원 등 5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주제는 황인규 동국대 교수가 주제발표 '북한산지를 통해 본 북한산사의 위상과 역할'을 통해 북한산성을 관리했던 북한산의 여러 사찰들과 중흥사의 위상에 대해 고찰한다.

제2주제는 박재광 전쟁기념사업회 책임연구원이 '수도방위와 북한산성의 전략적·지정학적 가치'를 통해 수도방위에 있어서 북한산성의 전략적 가치와 국방학적 관점에서 본 중흥사에 대해 발표한다.

제3주제는 조명제 신라대 교수가 '북한산성의 축성과 관리에서 승군과 중흥사의 역할'을 주제로 북한산성 축성에서 승군의 역할과 중흥사의 위상에 대해 발표한다.

제4주제는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한국불교사에서 중흥사의 위상과 역할'을 통해 중흥사와 조계종의 관련성을 조명

한다.

제5주제는 이경미 역사건축기술연구소 소장이 '승영사찰 중흥사의 가람배치와 복원방향'을 주제로 중흥사의 가람배치와 특징에 대해 발표한다.

조동섭 기자



한다.

제5주제는 이경미 역사건축기술연구소 소장이 '승영사찰 중흥사의 가람배치와 복원방향'을 주제로 중흥사의 가람배치와 특징에 대해 발표한다.

조동섭 기자

## 한국불교선리연구, 제6회 학술상 수상자 발표

우수상에 동국대 이자람 HK연구교수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3월 20일 제6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우수상에는 이자람 HK연구교수(동국대 불교학술원)의 '멸생건도의 다수결 원칙을 통해서 본 승가 분쟁 해결의 이념'이 선정됐다.

학술상에는 김치은 교수(진각대학원)의 '용성선사의 선밀쌍수에 대한 고찰'과 박상란 연구교수(강남대 인문과학연구소)의

'1930년대 불교잡지 동화의 성격과 전시동화(戰時童話)의 문제', 장은화 조계종 국제포교사의 '일본계 미곡선(禪)의 여성과 사회참여 그리고 간화선 세계화에 대한 제언' 등 3편이 선정됐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 학술상 3명에게는 각각 300만원이 주어지며, 논문은 학술발표 후 등재후보 학술지인 《선문화연구》에 게재된다.

조동섭 기자

# 社團法人 大韓佛教 宗團總聯合會 任員 改編 및 會員宗團 加入 公告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는 1984년 故 서경보 세계초대법왕 일봉 큰스님께서 창회한 이래 1994년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로 확대 재창회한 이래 1백여 종단 단체의 참여로 발전하고 활동해 오면서 그동안 매년 2회씩 연합법회를 통해 성도재일, 출가재일, 열반재일은 물론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단일교단으로써의 단결과 승려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진력해 한국 최대의 단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회원종단과 회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회의 숙원사업이었던 법인등록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각 종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앙망합니다.

- 참가방법 : 우편접수 또는 팩스, 전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적극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종단 및 단체가입 또는 지부설립)
- 참가자격 : 현재 설립운영 중인 각 종단 및 불교관련 신행단체 또는 사회사업단체
- 접 수 처 : 서울 은평구 녹번로 6가길 7호  
전화 02)358-6641-3 / 팩스 02)358-6643
- 각 종단 업무대행 해 드립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 제 2012-33호

총재 의륜 회장 청운 합장